

사회적으로 '차별'은 늘 소외를 만든다. 장애인에게도 그 차별적 시선은 늘 있어왔다. 사회가 발전해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장애인 차별은 없어지지 않았다. 4월 20일은 제26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은 법적 제재를 받

### 장애인의 날 특집 불교계 장애인복지관 활동현장을 가다

게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회 시스템이 좋아져도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함께 행복한' 사회는 꿈에 불과할 것이다. 인식의 변화와 효율적인 시스템, 불교계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활동현장은 '함께 행복한' 사회 만들기 노력으로 뜨겁다.

# “‘지하철 혼자 타기’ 어렵지 않아요”

## ●성북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탐방·안전교육

“여러분도 자유롭게 지하철을 타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조심하고 몇 가지만 알아두면 말이예요.”

4월 16일 오후 3시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역장 김재신).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몇 무리를 지어 역사로 들어서자 역무원들이 이들을 반갑게 맞는다. 이날 상월곡역을 찾은 ‘빨간 옷 군단’은 상월곡역 인근에 자리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산하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의 직원재활 훈련생을 비롯한 이용자 50여 명이다.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는 4월 14~22일 장애인 주간으로 선언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행사가 4월 14~17일 상월곡역에서 진행된 ‘장애인 편의시설 탐방 및 안전교육’이었다. 교육은 역무원들이 직접 나와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는 형식으로, 10분 내외로 진행됐다. 짧은 교육이지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현장에서 체험해 봄으로써 장애인이 지하철역을 이용하면서 봉착하게 되는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었다.

일단 장애인들이 선로에 떨어진다? 지하철이 다니는 철로 안쪽 옆을 살펴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런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안쪽으로 먼저 피했다가 지하철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역무원 또는 다른 승객에게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또 만약 보호자를 잃어버리거나 길을 못 찾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하철 역내를 살펴보면 빨간 ‘SOS’ 간판을 볼 수 있다. 이 표지판을 찾으면 그 밑에 긴급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서 역무원과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미아가 됐을 경우에도 침착하게 역무원을 찾아 신고하면 역무원이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역에 연락을 해서 인상착의를 설명, 보호자를 찾아준다. 보호자가 장애인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역무원에게 바로 신고하면 된다.

이날 딸 정아(28·가명)씨와 함께 온 김명숙(56·가명)씨는 교육을 들으며 “항상 딸을 잃어버리게 될까 노심초사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교육을 맡은 상월곡역 이병돈 선인주임은 “지체장애인들이 에스컬레이터 이용시 기계에 끼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 지적장애인들이 미아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 또는 도우미들의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실 이날 교육에서 장애인들이 많은 정보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관계자들은 “이번이 지하철 역사에서 장애인 이동 교육을 처음한 것이라 그렇다”고 해명했다. 이병돈 선인주임은 “상월곡역 주변에는 장애인관련 단체들이 몇몇 있어 장애인들이 자주 다니시는 곳 중 하나지만 아직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부족한게 사실이다”며 “2017년까지 우리 역을 비롯한 도시철도공사 모든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에서 진행된 지하철 안전교육에 참여한 성북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 이날 교육을 통해 이들은 사회로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역에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동교육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휠체어리프트 사용법’이 담긴 매뉴얼도 함께 배부됐다. 이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지하철역을 오갈 때 필요한 내용인데, 기존 매뉴얼이 없어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이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의 이날 행사 의미는 ‘일회용’이 아니라는데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이제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지만 완전히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하다. 이 현실 속에서 장애인들 스스로도 계속 부딪쳐보고 어떤 점을 사회에 요구해야 할지 찾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하철 안전교육부터 받는 것이 장애인들 스스로 바로 서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성북장애인복지관의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이 직접 사회를 체험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성북장애인복지관 방수정 팀장은 “우리 복지관에서는 앞으로 상월곡역과 협약을 맺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개선을 도모할은 물론 지하철역을 작업재활반 장애인들의 작품 전시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 “장애인들도 우리 이웃이에요”

##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식 개선 교육

“휠체어가 지나다니는 것은 많이 봤지만 직접 앉아보기는 처음이에요.”

“막 재밌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친구들을 내려다보지만 하다 직접 앉아보니 눈을 맞추며 이야

기할 수 있다. 어깨동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 지역 복지관에서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힘쓰는 가운데 천태종 복지재단 산하 충북 단양 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사용)도 4월 15일

단양 매향초등학교 강당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교육’을 실시했다.

아이들이 장애인에게 가진 편견을 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터. 그래서 이날 교육은 장애인체를 위주로 진행됐다. 즉,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불편함에 대해 직접 느껴보는 것이다.

경험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는 말이 맞았다. 아이들은 장애인들도 휠체어와 같은 보조장비만 있으면 사회생활을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으니 말이다.

한편 같은 날,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주제로 한 학부모 강의가 열렸다. 강연 강사는 영주초등학교 권오중 교장이었다.

권 교장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각 가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장애를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도 될 수 있다는 의식을 통해 장애인·비장애를 구분하지 말고 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진 기자

## ●개관 10주년 맞은 강북장애인복지관

# ‘맞춤형 복지’로 내실 키워

불교계 대표 장애인복지기관인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성산)이 10주년을 맞았다. 요즘 10주년 행사와 함께 장애인의 날 ‘특집’ 행사를 진행하느라 복지관 직원 38명 모두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은 4월 15일부터 10주년 기념 주간 ‘더불어 행복하게’ 행사를 시작했는데 그 첫 무대는 청와대였다. 이어 16일에는 체육대회, 17일에는 기념세미나 ‘뇌졸중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접근방안’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4월 22~24일 강북장애인복지관에서 멀지 않은 롯데백화점 미아점을 찾아 ‘나눔의 바자회’에 참여, 장애인인식

각각 만족시킬 수 있는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복지영역이다. 이 부분을 강북장애인복지관은 놓치지 않았다. 즉,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해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놀이·음악·미술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이어가고 있고 성인 및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바깥나들이와 함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살맛나는 댄스교실’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시행해 왔다. 더 나아가 요즘은 장애인 영역 중에도 다소 관심이 덜한 여성 장애인과 발달장애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의 성공 비결은 무엇보다도 ‘이용자’에 충실했다는데



강북장애인복지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를 펼쳤다. 사진은 4월 17일 10주년 기념식 모습.

개선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은 1998년 3월 독립시설로 설립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했다(현재는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운영지원사찰이다). 교계에 벤치마킹 사례가 없었음에도 개관 첫 해부터 심리·물리치료 등을 비롯해 실직가정지원사업, 장애인 청소년 통합 여름방학 프로그램, 직업재활사업 등을 실시했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은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장애인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사실 장애인복지는 그 스펙트럼이 넓어 정신지체장애와 지적장애, 어린이·청소년·성인 등을

있다. 강북지역에 1만 200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를 가지고 복지관 자체에서 꾸준히 욕구조사를 실시, 어떤 것이 장애인들에게 가장 절실한지 해결하려 노력해왔다. 200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0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평가 우수 기관 선정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강북장애인복지관 관장 성산 스님은 “앞으로도 사람사이의 따뜻한 정이 흐를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 지역 사회 모두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Lotus Lantern Festival 燃燈祝祭

“수행 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 Buddha's Birthday

# 연등축제

5월 3일 반월당 중앙로

- 문화체험 한마당 오후 12시부터~
- 법요식 오후 6시 30분~7시 30분 반월당 중앙로
- 제등행진 오후 7시 30분~ (반월당 중앙로)

점등식 4월 19일 오후 4시 국제보상공원 (식전행사: 4시 봉축합 점등식법요식 7시)

대구광역시 봉축위원회 Tel.623-6388 Fax.629-9600

## 사찰 연등 및 전선 (범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범당) 전기초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그늘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 시간 조절 가능

불제 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 전구 (국산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윌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윌라멘트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연등(정품)**  
 범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